

6학년 핵심 목록



성사 聖事 [라]Sacramentum [영]Sacrament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고 교회에 맡긴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 이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들에게 틀림없이 전달되며,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성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이 은총은 결실을 맺습니다.

I. 용어 사용 “❤️❤️”

신약성경 :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예식들, 즉 세례 · 성찬례 · 안수 · 병자도유(塗油)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성사’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사’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사크라멘툼’(sacramentum)은 2~3세기의 고대 라틴어역 성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리스어 ‘뮈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의 번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비’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복음서에 3번(마르 4, 11 ; 마태 13, 11 ; 루카 8, 10), 그 외의 신약 문헌에 24번 나오는데, 이 용어는 본래 종말의 비밀을 가리키는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사도 바오로를 비롯하여 초대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바오로에게 있어 ‘신비’란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1코린 2,7)를 뜻하며, 이 지혜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1코린 1,23)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콜로 2,2)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에페 5,32)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콜로 1,26). 그러므로 바오로 서간에 나타난 ‘신비’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느님의 숨겨진 구원 경륜이며, 신비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현존합니다.

II. 칠성사 “❤️❤️”

체계화 : 신약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형태로 등장하는 성사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인데, 이 두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고 그분의 구원 업적에 참여하는 데에 결정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병자 치유 · 성령 전달 · 특별한 봉사직에의 임명을 위해서 안수가 실시되었다는 사실과 병자를 방문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권고도 발견됩니다. 그리스 교부들은 신약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숙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원형(原型)은 모형(模型) 안에서 현존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플라톤 철학의 ‘원형-모형’(Urbild-Abbild)사고방식을 배경으로 성체성사를 이해하였습니다. 즉 원형이 그를 모사한 모형에 현존하며 자신을 드러내듯이 원형인 그리스도는 모형인 성찬례 안에 현존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성찬례는 그리스도라는 실재를 포함하는 ‘실재상징’(實在象徵)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성찬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고 그분의 구원 공로를 나누어 받습니다.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이미 신약성경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성사들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다가 교부 시대를 거쳐서 12세기에 이르러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해성사의 예절에 관한 최초의 확실한 자료는 2세기 중반에 저술된 헤르마스(Hermas)의 작품이며, 최초의 서품 예절과 서품에 관한 것과 병자들을 위한 도유에 사용되는 기름의 축성은 히폴리토(Hyppolytus, + 235)의 《사도전승》에 명백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역사 자료에 따르면 교회 직무자가 혼인 예식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400년경부터였지만, 신학자들이 혼인을 성사로 인정한 것은 12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견진성사는 원래 세례성사의 한 부분이었으나 1000년경에 세례성사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성사로 거행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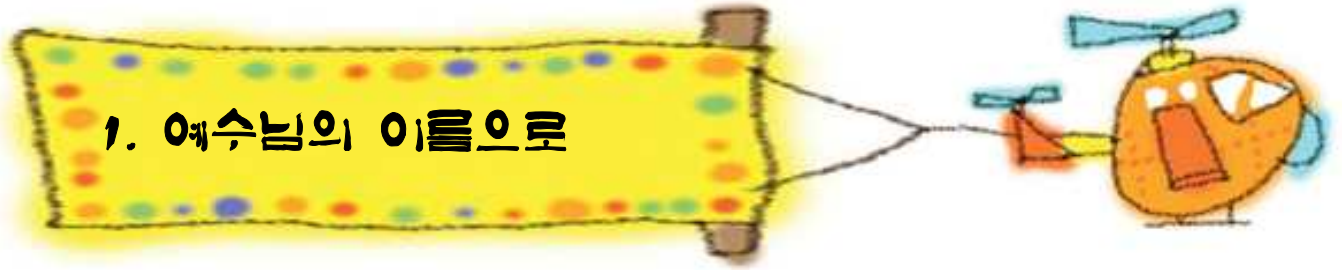
12세기에 이르러 성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에 의한 제정 여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생 빅토의 후고(Hugo a Sancto Victore,+1141)는 성사 개념에서 가시적인 표징, 그리스도에 의한 제정, 은총의 포함이라는 세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성사는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외적 요소로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신적인 은총을, 비슷함을 근거로 표현하며, 설정을 근거로 의미하고, 거룩한 축성을 근거로 포함한다.”(De Sacramentis Christianae fidei, 1,9,2). 이러한 성사의 개념 정의와 함께 이전에 30개에 달하였던 성사의 수는 7개로 고정되었습니다.

III. 종류와 내용 “❤️❤️”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견진성사’로 성령 칠은(슬기 · 통달 · 의견 · 굳셈 · 지식 · 효경 · 두려워함)의 은혜를 주는 성유 도유를 통해서 세례를 보충하고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들 서로간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성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혼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신적인 희생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자신을 함께 봉헌하며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고해성사’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를 참회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인성사’를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품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의 구원 사업을 계속 이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축성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병자성사’를 받습니다.

IV. 현대의 성사 이해 “❤️❤️”

12세기 이후 성사는 7개로 규정되었고, 외적인 표징 · 은총의 포함 · 그리스도에 의한 제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성사의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성사 제정은 종교 개혁 이래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만을 성사로 인정한 반면에, 가톨릭교회는 칠성사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성사 제정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스킬러벡스(E.C.F.A. Schillebeeckx, 1914~)는 성사의 ‘핵심’과 ‘표현 양식’을 구분하면서 예수는 단지 ‘성사적 표징의 핵심’ 즉 성사적 표징이 의미하는 은총만을 규정하였고, 나머지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맡겨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하느님이 원한 자유 속에서, 그러나 하느님이 원한 한계 내에서 교회의 실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성사의 표현 양식을 다양한 예식의 형태로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라너(K. Rahner, 1904~1984)는 성사가 ‘근본 성사’(Grundsakrament)인 교회의 자시 실현이라는 자신의 신학 이론을 근거로 성사 제정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사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근본 성사라는 특성과 함께 세웠다는 것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성사의 제정은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회가 항상 성사의 실행 방식 · 발전 · 변형을 규정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 라너의 주장입니다. 성사의 외적인 표징은 표징 행동과 그 의미를 밝혀 주는 말씀으로 구성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로 성사를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 안에서 고찰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은총을 전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즉 성사는 사효적 효력을 지닌다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사에서 사효적 효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성사 참여자의 신앙도 중요시하면서 ‘원인’ · ‘도구’라는 인과적인 의미의 개념보다는 ‘대화’ · ‘만남’ · ‘교류’라는 인격적인 의미를 지닌 낱말로 성사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스킬러벡스는 성사란 하느님 혹은 그리스도와 각 신앙인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 학문의 각 분야 특히 심층 심리학의 발달은 상징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상징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성사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사는 단지 외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려 주는 역할에 그치는 ‘정보(情報)의 상징’이 아니라 표현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하는 ‘실현의 상징’인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教會 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 ecclesia (명.여)

교회의 설립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이 집회 안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재통합과 종말론적 희망의 주제가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확신하였다. 바오로는 이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자주 사용하였고, 전체 구원 계획의 지평에 있는 교회로 묘사하였다. 바오로에게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시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로서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발견한 하느님 백성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역사 가운데서 사회적 실체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집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 사건으로 일어난 하느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신앙인의 공동체로 이해하였다.

★1.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백성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즉 하느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시작하였다.(교회 5항)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느님 나라가 불러 모으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연역해 낼 수 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느님 백성의 집결과 하느님 나라의 재건에 관심을 보이셨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하느님 나라와 교회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전례적 식사에서 상징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징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종합하고 있다.

★3. 예수님의 칭호와 교회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종 등의 호칭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사용한 호칭들이다. 이는 예수가 사적인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련된 인간이었음을 암시해 주며 여기서 교회 설립의 근거를 볼 수 있다.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 가톨릭 교회교리서(763항)

때가 찼을 때 성부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성자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파견하신 동기이다. 주 예수께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르 1,15; 마태 4,17) 하시며 세세로부터 성경에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당신 교회를 시작하셨다. 성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교회는 신비에 싸여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764항)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과 현존으로써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났다.(교회헌장 5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시작과 짝은 예수께서 오시어 당신 주위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작은 양 떼(루카 12,32)”이며, 예수께서 바로 그들의 목자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을 이룬다. 이처럼 당신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새로운 행동양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고유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

★ 가톨릭 교회교리서(765항)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에 하느님 나라가 완전히 이룩될 때까지 지속될 조직을 만들어 주셨다. 우선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고 게임

우리 교리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고 아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각 칸에 적어 보세요.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름을 네 개 다 적으면 '빙고' 하고 외치세요.



위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학습목표

- 교회와 교회 생성에 대해 알고 한 해 동안의 교회생활을 다짐할 수 있다.



경험

- 처음 교리를 시작하면서 학생들끼리의 서먹한 분위기를 '빙고' 라는 게임을 통해 조금 더 친숙한 분위기로 이끈다.
- 각 그림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게임방법1

게임의 규칙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네 개의 이름을 다 적고 '빙고' 를 외치는 친구가 우승이다.

목주를 가지고 있는 친구	옷에 꽃무늬가 있는 친구	세례명이 네 글자인 친구	가족이 모두 신자인 친구
성가대에 속한 친구	전례부에 속한 친구	복사단에 속한 친구	오랜만에 성당에 온 친구
미사 때 옆에 앉은 친구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	가족들 중 혼자 신자인 친구	기도문을 가장 많이 아는 친구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친구	나의 이름	친척들 모두 신자인 친구	미사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



게임방법2

제일 먼저 이름을 적고 '빙고' 를 외치는 방법이 아니라 해당하는 이름을 모두 적고 돌아가면서 이름을 말하고 자기가 적은 이름이 나오면 그 칸에 동그라미를 쳐서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모두 하게 되면 '빙고' 를 외치는 방법도 있다.



위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다.



예수님이 불쌍어요.

「두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이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사도 10,43~4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무엇이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메시지

- 마태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함을 알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무엇이라 하나요?

-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가요?

- 항상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느낄 때



성경말씀(마태 18,20)

주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수의 양떼 사이에 현존하여 계신다. 그들이 “당신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즉 그들의 모임이 예수님께 대한 공동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찾아오신다. “이름”이라는 말은 존재의 실존과 전체적인 실재를 의미한다. 공동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오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도 최소한의 숫자만 요구되고 있다. “두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엔 충분하다.



성경말씀(사도행전 10~11장 해설)

사도행전 10~11장은 초대 교회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 중 최고 절정 부분에 이른다. 베드로는 리타로부터 요바로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에는 가리사이아로 간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처음으로 비유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짐을 밝히고 있다. 고르넬리오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밝히고자 함이다.

43절의 의미

베드로는 예수를 산 이와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기쁜 소식”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가리킨다. 즉 구세주이며 동시에 심판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의 모든 구원 행위를 요약하기 위해 “죄의 용서”라는 구절을 사용할 때, 과거 수세기의 하느님의 계시는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 이 점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비중을 둔다.

44절의 의미

베드로와 백인대장 고르넬리오와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은 구원 활동의 진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친히 증거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와 같이, 부활하시고 들어 놓여지신 주님은 성령의 오심에 의해, 그리고 교회의 구원 활동의 시작을 인류에게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한 말들에 의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가이사리아 고르넬리오 집에서의 또 다른 성령강림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상징이다. 즉 교회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직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출처 : 신약성서 영적독서를 위한 사도행전 - 성요셉출판사)



깨달음

- 교회와 예수님과 동일시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채택하였다.
- 사울이야기 소개 방법
 1. 사울에 관련된 영상
 2. 이야기 형식으로 교사가 진행
 3.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방법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했나요?

- 조상대대로 전수되어 온 자신들의 신앙적 구심이었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항부로 간과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왜 눈이 멀었나요?

-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선택하기 위함이다.



하나니아스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울을 치유했나요?

-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주어 눈을 치료하였고,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치유 받은 사울은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성경풀이(사도 9,1~22)

주님의 현시 사건은 바울로가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자신의 전통적인 믿음 안에 점목시킨 한편, 이제는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과 그분에 관한 복음을 동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소명을 받는 계기를 밝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바울로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방인 선교를 주님 자신이 결정하여 바울로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다. 바울로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헬라계 그리스도교 선교자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8,1)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을 올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압도적인 힘에 의해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선택되었다.

(출처 :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



참고자료(사울의 교회 박해 배경)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대인이었던 사울 역시 박해에 동참하고 있었다. 사도시대 때 유대인들은 같은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는 형편이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대립은 이스라엘 본토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에 확산 되었다.

1.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

초기 기독교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외세의 침략과 정복에 의하여 국가 없는 조국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리며 살았다. 그리 그들에게는 조상대대로 전승되어 온 메시아사상에 의한 대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출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심히 분노하였고 그를 로마법정에 세워 처단해 버렸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던 예수그리스도의 잔영<殘靈>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유대교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본토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이집트, 팔레스티나 등등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 전체에 만연되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는 본토 유대인 사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2. 민족적 개념에 의한 대립.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느님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전파되는 것에 분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선택된 백성은 오직 히브리민족 이스라엘 뿐 이었다. 수천 년 간 조상대대로 계승되어온 선민사상과 자신들만의 하느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온 그들에게 세계적인 하느님을 주장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매국노였고 역적이었다. 특히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사이에는 조국과 민족의 멸망과 비극에 대한 역사관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조국과 민족의 비극적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처형한 유대교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3. 교리적 개념에 의한 대립.

유대교인들은 기독교가 조상대대로 전수되어 온 자신들의 신앙적 구심이었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간과하는 것에 크게 분노하였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 문제를 비롯한 율법문제로 예수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가 번번이 참패당한 상처와 감정이 있었다.

응답

-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에 해당하는 천사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천사가 될 것인지 써 봅시다.

- 예시답안 : 나는 웃음천사가 되어 친구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천사가 될 것인지 써 봅시다.

.....

.....

.....

★ 천사의 역할

- 웃음천사 : 항상 밝은 웃음을 보여주세요.
- 선행천사 :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 성실천사 :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 기도천사 : 이웃을 위해 항상 기도해요.
- 사랑천사 :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세요.
- 인내천사 : 힘든 일이 있을 때 투정부리지 말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평화천사 : 이웃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 보세요.
- 친절천사 :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친절히 대해주세요.